

# 꽃피는 민족문화와 전통

## 《민족의 고유한 (5감)까지도 사라져간다》

- 남조선에서 -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조선민족은 대대로 한강도에서 살아오면서 아름다운 생활양식과 풍습들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왔다.

그 가운데는 가장 크고 경사로운 명절로 되어온 설명절을 즐기는 풍습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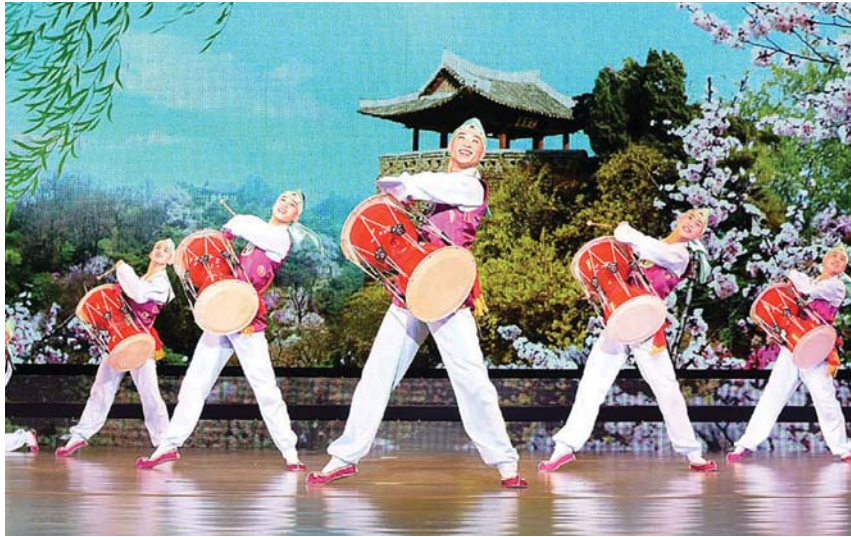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적인 생활풍습이 절절히 어려있는 민족 전통은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퇴색되지 않고 련綿히 이어지고 있다.

우수한 민족전통이 변함없이 이어지고있음을 각인해주는 여러 사진들은 보면 볼수록 민족성이 살아숨쉬는 이 땅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고있다.

홍겨운 민족놀이를 하는 학생소년들, 뜻깊은 명절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큰절을 올리는 귀여운 어린이들, 이웃들과 함께 모여앉아 웃놀이를 하는 녀성들의 모습...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민족문화전통이 훌륭히 계승발전되고있는 공화국에서 민족의 고유한 향취, 유구한 전통과 풍습은 대를 이어 길이 전해질것이다.

본사기자



설명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설명절을 맞이하는 인민들에게 더욱더 풍만한 민족적정서와 기쁨을 안겨주며 곳곳마다에 이채롭게 펼쳐진 장식들과 전통적인 민족료리봉사준비로 흥성은 금양봉사망들...

보면 볼수록 우리 민족이 제일이고 민족의 우수성을 귀중히 여기고 더욱 아름답게, 더욱더 풍만하게 가꾸어가는 내 조국이 제일이라는 확신을 가슴깊이 새겨주는 이런 화폭들은 과연 어떻게 마련된것인가.

언제인가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문득 올해 음력설이 언제인가고 물으셨었다.

일군들은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해마다 1월 1일을 설명절로 쇠다니나 음력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돌려보지 못한 그들이었던것이다.

잠시 일군들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옛날부터 우리 사람들은 음력설을 쇠는것을 전통으로 하였다고 하시면서 해방직후까지만 하여도 음력설을 크게 쇠곤 하였는데 그후 다른 나라 풍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없어진데 대하여 고사하시었다.

이어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들은 음력설을 즐겁게 쇠곤 하였다고, 온 한해동안 일하다가 음력설이 오면 지방마다 특색있는 여러가지 음식도 만들어 먹고 웃놀이를 같은 즐거운 민족놀이도 하였으며 아이들은 연피우기, 제기차기, 썰매타기와 같은 유희를 많이 하였다고 하시었다.

우리가 음력설을 쇠지 않으면 앞으로

도 후대들이 음력설이 어떤것인지 알지 못하게 될수 있다고, 해당 부문에서 앞으로 음력설을 어떻게 쇠게 하겠는가 하는것을 연구해보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가르치시었다.

오늘 공화국에서 민족의 우수한 전통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 애국애족의 의지에 떠받들려 더욱 활짝 꽃피나고있다.

꽃피마다에 일떠선 민족적건축형식에 현대적미감을 갖춘 건축물들과 민족유산보호정책에 의해 자기의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있는 력사유적, 유물들. 나날이 발전하는 민족음식들,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전통적인 민족명절들, 사람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심어주며 활발히 벌어지는 씨름과 바줄당기기와 같은 민족체육경기들과 장기, 윗놀이, 연피우기를 비롯한 민족오락들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조선로동당의 옹호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노래를 불러도 누구나 우리 민족의 고유한 선례에 맞추어 부르고 춤을 추어도 우리 민족의 장단에 맞추어 추고있으며 옷을 입어도 민족옷을 입고 인사를 해도 조선절을 하고있다. 또한 주제성과 민족성이 구현된 평양문화어를 적극 살려쓰고있다.

참으로 절세위인들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현명한 령도에 의해 우수한 민족문화전통과 풍습이 면면히 이어지고 날로 발전하는 공화국이아말로 민족의 얼이 살아숨쉬는 곳이다.

본사기자 김진혁

### 공화국정부의 민족유산보호정책에 의해

### 방문기

### 전통음식의 구수한 향취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설명절을 맞을 때마다 명절음식으로 떡국을 즐겨 만들어 먹었다. 흔히 무엇을 대신한다고 할 때 쓰는 《평대신 닭이다》라는 속담도 떡국을 끓일 때 평고기가 없으면 닭고기를 대신 쓴다는데로부터 유래되었다. 설명절이면 반드시 떡국을 먹는다는데로부터 어린이들의 나이도 떡국을 몇그릇째 먹었는가로 물어보곤 하였다고 한다.

《철세병》, 《병량》이라고도 불리우는 떡국은 이렇듯 우리 민족의 식생활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는 음식이다. 평양고려호텔근방에 위치한

한 창밖음식점거리 떡국집은 떡국을 잘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기자와 만난 이곳 떡국집의 서헌경책임자는 떡국, 절편, 복두지짐을 비롯한 민족음식들을 만들어 봉사하고있는데 손님들이 즐겨 찾아온다고 이야기하였다. 《떡국은 비장과 위를 보하고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의 병후회복과 몸보양에도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그의 구수한 이야기를 들으니 떡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 동했다.

이 더 흥미있는 횡횡을 띤 버들잎모양의 가래떡들이 들여다보이는 장국물, 신선한 고기와 구워 부스르뜨린 김, 가늘게 썰어넣은 파, 참깨가 함께 어울려 상큼한 향기를 풍기는 떡국. 가정들에서도 떡국을 만들어 먹곤 하지만 아마도 떡국고유의 맛은 전문식당에서 느껴려는듯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고 한다. 《정말 맛있구만요. 우리 민족음식이 제일입니다.》 《영남이, 친철히 하나씩 먹어요. 그러다가 허까지 넘어가겠어요.》 가족끼리 오붓이 모여앉아 음식을 들며 하는 소리들이었다.

가래떡의 쫄깃쫄깃한 맛과 맑고 구수한 고기국물맛이 함께 어울린 떡국의 감미로운 맛은 그 무엇에도 비길데 없다. 음식문화가 나날이 발전하는 오늘에 와서도 사람들은 이 떡국을 즐겨 먹는 이유는 그 맛이 독특하고 약리효과가 높음데만 있는것이 아니다. 단란한 분위기속에 김이 문문 나는 떡국을 갖게 드는 그 모습이 긴 세월 거레모두의 가슴속에 한쪽의 아름다운 그림자처럼 소중히 자리잡아왔기때문이다. 공화국에서는 민족의 유구성과 우수성, 고유한 생활세계가 반영되어있는 《떡국만들기》가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있다. 한술가락만 입에 넣어도 구수한 떡국은 예로부터 하나의 강토에서 한피울을 이으며 화목하게 살아온 고상하고 문명한 우리 민족의 전통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본사기자 림광훈



### 《북은 민족의 혈맥이 용용히 뿜어내는 민족성의 대화원》

민족의 문화와 전통이 활짝 꽃피어나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을 두고 남조선인민들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찬란한 목소리를 터치고있다. 《이남에서는 서양풍, 왜풍에 휘말려 단일민족의 혈통이 흐려지고 민족문화와 전통이 흔적없이 사라져가지만 이북은 다르다. 이북은 민족의 혈맥이 용용히 뿜어내는 민족성의 대화원이다. 이북에는 분명 민족본연의 모습, 우수한 전통과 문화가 있고 고유의 멋과 향기가 있다.》 《한지맥으로 잇닿은 북의 현실은 위인이 있는 곳에 민족의 참모습이 있고 그 위대함이 있다는 철리를 대명제로 다시금 새기게 한다.》...

남조선의 한 력사학자는 《민족의 참모습을 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펴놓았다. 《이남에서는 민족의 넋과 미풍양속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송두리채 사라지고있는 반면에 이북에서는 민족적인 모든것이 철저히 고수되고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다. (남이 사는 내 나라), 이것이 이남의 상징적인 대명사이다. 내것인것으로 사실상 내것이 아닌 남의 땅, 신조들이 창조한 유산들이 외세의 탐욕과 끊임없는 전쟁연습으로 무참히 약탈, 파괴되고있는 곳이 다른아닌 이남이다.》

자기를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남과는 달리 이북에서는 자기를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민족적정서와 요구에 맞게 꽃피우고 품미해가고 있다. 이북에서는 조상전래의 유적, 유물 등 유산들이 끊임없이 조사발굴되고 훌륭히 복원되어 민족의 향취를 풍기

고있을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미풍양속이 개화만발하고 민족전통이 참담게 살아숨쉬고있다. 서울의 한 언론인도 어느 한 모임에서 《북에서는 TV나 방송은 물론 각종 출판물들과 거리의 간판들 그 어디에서나 외래어를 도저히 찾아볼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여 민족의 얼이 살아숨쉬고있는 북이다.》라고 말하였다. 남조선의 한 자유기교가는 자기의 글에서 《조국은 사람들의 운명을 맡아 지켜주고 빛내주는 위대한 품이다. 하다면 우리의 진정한 조국은 과연 어디인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썼다. 《나는 그 대답을 이북에 펼쳐진 현실에서 찾는다. 이북은 민족의 넋이 살아숨쉬고 민족적존엄이 빛을 뿌리는 민족의 성지이다. 이북은 민족이 안겨줄 행복의 요람이며 민족의 운명을 영원히 맡아안고 빛내여줄 위대한 품이다.》

본사기자

